

## 『鍼灸經驗方』 ‘諸節皆屬膽’에 대한 고찰

<sup>1</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sup>3</sup>제한동의학술원 · <sup>4</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장희원<sup>1</sup> · 정상선<sup>1</sup> · 송지청<sup>2, 3</sup> · 엄동명<sup>1, 4</sup> \*

### Study on ‘All Articul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allbladder’ in *Chingugyeongheombang*

Jang Heewon<sup>1</sup> · Jeong Sangseon<sup>1</sup> · Song Jichung<sup>2, 3</sup> · Eom Dongmyung<sup>1, 4</sup> \*

<sup>1</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4</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All articul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allbladder’ as urged by Heoim in *Chingugyeongheombang* was reflected in the clinical field, and look into the reason for his assertion.

**Methods** : The paper looked into *Chingugyeongheombang* and 1) found examples of how acupoints related to gallbladder were used to treat articulation-related diseases, and 2)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gallbladder and articu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acupoints used for treating articulation-related diseases. These are then compared with *Zhenjiuzhishengjing* to see if the assertions made in ‘All articul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allbladder’ were actually applied in clinical fields.

**Results & Conclusions** : Heoim dealt with 20 points out of the 44 acupoints for gallbladder, and used 14 of them for treatments of articulation-related diseases. Gallbladder acupoints were used for ten illnesses, and four of them were related to articulation. *Chingujasaenggyeong* showed a difference in that it did not utilize gallbladder acupoints to treat these illnesses. Out of 33 articulation-related illnesses, gallbladder meridians and acupoints were suggested as a means to treat them in 15 cases, and this is an increase in the usage of these points compared to *Chingugyeongheombang*. In other words, Heoim actively utilized gallbladder meridian points in treating articulation-related illnesses. The reason Heoim drew a line between gallbladder and articulations is because gallbladder is categorized as a lesser yang pivot and articulations itself functions as a pivot by acting as a pivot for human body movement.

**Key Words** : *Chingugyeongheombang*, Articulation, Gallbladder, Lesser Yang, Pivot

## I. 서론

許任(1570~1647年)은 조선 선조대 侍醫로 당대에 名醫로 이름을 날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鍼灸 치료에 뛰어난 실력을 보여 鍼醫로 명성을 얻었으며,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1644년 침구 전문 서적인 『鍼灸經驗方』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침구 이론과 자신의 임상 경험을 종합하여, 鍼灸 補瀉法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등 독창적인 주장들을 내놓았는데<sup>1)</sup>, 그 중 하나가 “諸節, 皆屬膽”<sup>2)</sup>이라는 문장이다.

이는 『鍼灸經驗方·序文』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기존의 膽 혹은 節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총론 부분에서 단순하게 문장만 제시하였을 뿐,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놓지는 않았다.

『鍼灸經驗方』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저자인 許任의 생애<sup>3)</sup>와 『鍼灸經驗方』의 판본<sup>4)</sup>, 간행배경, 편제 등에 대한 의사학적 접근<sup>5)6)</sup>, 당시의 의료 현실<sup>7)</sup> 및 鍼中腕穴手法<sup>8)</sup>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본문의 『訛穴』<sup>9)</sup>과 침구 처방의 특징<sup>10)</sup>에 대한 연구, 眼

疾患<sup>11)</sup>, 頭痛과 眩暈<sup>12)</sup>, 中風<sup>13)</sup> 등의 질환을 다른 국내 침구 서적과 비교 고찰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諸節, 皆屬膽”에 대해 그 근거 및 임상 활용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주장이 許任의 침구 처방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膽과 節의 관계 제시

『鍼灸經驗方』 곳곳에서 膽과 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먼저 서문을 살펴보면, 許任은 “諸痛痒瘡瘍, 皆屬心”<sup>14)</sup>과 같이 病機 19條의 형식을 빌려 五藏 각각이 주관하는 병증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말미에 “諸節, 皆屬膽”<sup>15)</sup>이라 하여 膽이 節을 주관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五臟總屬證」에서 “諸節, 皆屬膽”<sup>16)</sup>, 「五臟腑屬病」에서 “膽屬病 … 膽主謀慮, 亦主骨節”<sup>17)</sup>이라 하여 膽이 節을 주관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許任의 관점은 기존의 膽과 節에 대한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312 Prof. Graduate of Korean Medicine Building,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City, Jeonbuk, ROK. Tel : 063-850-6941 Fax : 063-842-4328 Email : haksan@wku.ac.kr  
Received(28 October 2016), Revised(14 November 2016), Accepted(15 November 2016)

1)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編. 新韓醫學大辭典.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p.1834. [허임/許任]  
2)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60.  
3) 임선빈. 조선중기 鍼醫 許任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실학. 2014. 54.  
4) 오준호.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 : 판본조사와 手抄 내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2011. 38.  
5)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 저자, 판본, 간행배경, 편제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1).  
6)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2. 15(1).  
7) 오준호. 『침구경험방』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 의료와 침구기법.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1).  
8) 오준호, 안상우. 『鍼灸經驗方』 鍼中腕穴手法 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10. 27(2).  
9) 이연희 외 4인. 『鍼灸經驗方』 『訛穴』의 取穴法 분석에 따른 현대적 적용 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08.

25(4).

10) 박세경. 안창범. 許任의 鍼灸經驗方에 대한 考察. 동의한 의연구. 2007. 1.  
11) 한창현 외 5인. 국내침구서적의 眼疾患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3).  
12) 한창현 외 5인. 두통과 현훈 치료관련 침구문헌 비교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 16(1).  
13) 한창현 외 5인. 국내침구서적의 중풍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의 비교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09. 26(2).  
14)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60.  
15)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60.  
16)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71.  
17)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76.

Table 1. All and *Chimgugyeongheombang*'s meridian points in Gallbladder meridian(GB)

足少陽膽經의 혈	瞳子膠 聽會 上關 頷厭 懸顛 懸厘 曲鬢 率谷 天衝 浮白 頭竅陰 完骨 本神 陽白 頭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 風池 肩井 淵液 輒筋 日月 京門 帶脈 五樞 維道 居膠 環跳 風市 中瀆 膝陽關 陽陵泉 陽交 外丘 光明 陽輔 懸鍾 丘墟 足臨泣 地五會 俠谿 足竅陰
『十二經抄穴』의 혈	竅陰 俠谿 頭臨泣 丘墟 懸鍾(絶骨)* 陽輔 陽陵泉 環跳 京門 日月 肩井 風池 目窓 足臨泣 本神 上關(客主人)* 聽會 瞳子膠 風市 當陽**
병증 치료에 쓰인 혈	竅陰 頭臨泣 丘墟 懸鍾(絶骨) 陽輔 陽陵泉 日月 肩井 風池 足臨泣 本神 風市 當陽

\* ( ) 안은 경혈의 異名으로 병증 치료 부분에서는 주로 異名으로 지칭됨.

\*\* 當陽은 別穴로써 許任이 足少陽膽經의 穴로 제시함.

먼저 膽에 대하여 살펴보면,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sup>18)</sup>”이라 하여 膽은 中正之官으로써 정신 활동 가운데 판단과 결정에 참여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는 “名淸淨府, 而避乎胃之私汚<sup>19)</sup>”라 하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관여하되 傳化之府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냄을 설명하였다.

節과 관련하여서는 『素問·逆調論』에서 “腎者水也, 而生於骨, 腎不生, 則髓不能滿, 故寒甚至骨也. … 所以不能凍痺者, … 病名曰骨痺, 是人當攣節也.”<sup>20)</sup>라 하여 節은 骨의 한 부분으로써 腎과 관계됨을 제시하였다. 한편 『素問·五藏生成』에서는 “諸筋者, 皆屬於節<sup>21)</sup>”이라 하여 筋과 節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肝者… 其華在爪, 其充在筋<sup>22)</sup>”이라 하여 肝이 筋을 주관함을 제시하였다.

즉, 이전의 의서에서는 節과 관련된 장부로 腎과 肝을 제시하였을 뿐, 膽과의 관계를 명시한 바가 없으며, 膽 역시도 節과 관련된 역할이 제시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諸節, 皆屬膽’은 膽과 節에 대한

許任의 독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2. ‘諸節, 皆屬膽’의 임상 활용

許任은 ‘諸節, 皆屬膽’이라는 개념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 足少陽膽經 2) 膽俞 3) 關節 질환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 1) 足少陽膽經

膽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경혈은 足少陽膽經에 속한 경혈들이다. 足少陽膽經은 좌우 각각 44개의 경혈<sup>23)</sup>로 구성되어 있는데, 許任은 「十二經抄穴」<sup>24)</sup>에서 足少陽膽經의 주요 穴로 19개 本穴과 別穴로 當陽 1개를 포함하여 모두 20개 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 14개 穴을 병증의 치료에서 언급하였다.(Table 1. 참조)

이들 14개혈이 활용된 병증을 節과 관계된 병증과 기타 병증으로 나누어 보면 Table 2.와 같다. 살펴보면, 14개 혈 중 9개의 穴이 轉筋, 項強, 關節不遂, 筋攣, 關節腫痛, 痺 등 節과 관련된 질환에서 치료혈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질환에서 치료혈로 사용된 경우와 비교해보면, 足少陽膽經의 경혈이 활용된 병증은 총 59가지로, 그 중 20개 병증

18)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36.

19) 李梴 編著. 原本編註醫學入門(內集卷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337.

20)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111.

21)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3.

22)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1.

23)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著. 한국한의학회, 대한침구학회, 경락경혈학회 譯. WHO/WPRO 표준경혈위치(한글 공식판). 서울. Elsevier Korea. 2009. p.175.

24)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89.

Table 2. Diseases that treated by meridian points of Gallbladder meridian(GB) in *Chingugyeongheombang*

穴名	節 관련 병증	기타 병증
竅陰	四肢轉筋厥逆 轉筋汗不出	咳嗽汗不出
頭臨泣	없음	鼻塞 風眩
丘墟	없음	太息善悲
懸鐘 (絕骨)	項強 肘腕酸痛重 手五指不能屈伸 諸節痛 四肢轉筋 言語蹇澁·半身不遂 歷節風 轉筋霍亂 腎厥頭痛(筋攣, 驚恐, 不嗜臥) 將中風之候(未中風之前, 足脛痠疼頑痺) 鷄癩(善驚反折, 手掣自搖)	耳聾 口苦 飢飢 喉腫胸脇支滿 胸引兩脇痛 胸連脇痛 四肢面目浮腫 腋腫 骨髓冷痛 脚足寒冷不可忍 五淋 腹滿不食 尸厥 兩目皆赤 虛勞 瘵瘵(少陽瘵) 身體不仁 大風瘡(腋腫·馬刀·挾纓風癩) 嘔吐(兼寒熱) 嘔吐(兼乍寒乍熱, 心煩)
陽輔	없음	傷寒(在表의 경우)
陽陵泉	轉筋汗不出	驚恐心痛 瓜藤癰
日月	없음	太息善悲
肩井	項強 言語蹇澁·半身不遂	虛勞百損·失精勞症 疔腫(生背上의 경우) 瓜藤癰 胞衣不下 墮胎後手足如水厥逆
風池	項強 腰背偃僕 鶴膝風 諸節痛 歷節風	偏頭痛·目眈眈不可忍 迎風冷淚 蝮蛇癰 兩目皆赤
足臨泣	周痺 周痺(兼振寒) 鷄癩(善驚反折, 手掣自搖)	傷寒(傳三日의 경우) 乳癰
本神	鷄癩瘦瘵	偏頭痛·目眈眈不可忍
風市	言語蹇澁·半身不遂 腦痺	없음
當陽	없음	瀉諸陽之氣 風目眶爛 蝦蟆瘟

이節과 관련되어 있어 膽經의 경혈 활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懸鍾(絕骨), 風池는 ‘諸節痛’의 치료혈로 소개하여 節 관련 병증에 폭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許任은 膽과 節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足少陽膽經의 경혈을 관절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膽俞

膽과 관련된 또 다른 경혈로는 足太陽膀胱經에 속한 膽俞가 있다. 『鍼灸經驗方』에서 膽俞가 활용된 병증을 관절 병증과 기타 병증으로 나누어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膽俞는 총 10개의 병증에서 치료혈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 4개의 병증이 節과 관련된

질환에 해당한다. 특히 足少陽膽經의 絕骨, 風池와 마찬가지로 諸節痛의 치료혈로 膽俞를 제시하여 節 관련 병증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able 3. Diseases that treated by BL19 in *Chingugyeongheombang*

節 관련 병증	기타 병증
諸節痛	腋腫
歷節風	瘵瘵(太陰瘵)
腎厥頭痛 (筋攣, 驚恐, 不嗜臥)	酒疸
轉筋汗不出	咳嗽汗不出
	身熱如火汗不出
	嘔吐(乍寒乍熱·心煩)

Table 4. Diseases that treated by BL19 in *Chingujasaenggyeong* and *Chingugyeongheombang*

『針灸資生經』	『鍼灸經驗方』
脇痛不得臥 胸脇不能轉 腋下腫	腋腫
嘔則食無所出 胸脇支滿, 嘔無所出 飲食不下 口舌乾, 食飲不下 口苦舌幹 咽痛, 食不下 痰悶 心脹滿, 吐逆短氣 心腹脹滿	嘔吐 (乍寒乍熱·心煩)
目黃	酒疸
頭痛振寒, 汗不止 振寒 振寒汗不出	瘧瘧 身熱如火·汗不出 咳嗽汗不出
없음	轉筋汗不出 諸節痛 歷節風 腎厥頭痛

이를 당시 醫科 取才의 침구학 분야 시험 서적<sup>25)</sup>이었던 『針灸資生經』<sup>26)</sup>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Table 4.와 같다.

『針灸資生經』에서 膽俞를 치료에 활용한 병증들은 『鍼灸經驗方』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鍼灸經驗方』에서 膽俞를 치료에 활용했던 관절 질환들(Table 3. 참조)은 모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침구 처방이다. 즉, 이러한 膽俞의 활용은 膽과 節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던 許任의 독특한 임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3) 관절 질환

관절 질환에 대해 『鍼灸經驗方』에서 어떤 치료법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관절 질환의 범주를 결정하였다.

우선적으로는 관절을 여러 이유(통증, 강직 등)로 뜻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인 腰腫痛, 手五指不能屈伸 등의 병증을 관절 질환에 포함시켰다. 한편 『素問·五藏生成』에서는 “諸筋者, 皆屬於節”<sup>27)</sup>이라 하여 筋은 관절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관절의 문제는 곧 관절에 속하여 연결된 筋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手足筋攣蹇澁, 手臂善動 등 筋과 관련된 병증 또한 관절 질환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병증을 분류해보면 『鍼灸經驗方』에서 다루고 있는 관절 질환은 총 31가지이다 (Table 5.). 그리고 그 중 앞에서 언급한 足少陽膽經의 경혈이나 膽俞를 치료에 사용한 질환은 15개이다. 이들 질환 각각에 제시된 치료혈을 『針灸資生經』과 비교해보면 Table 6.과 같다.

살펴보면, 轉筋, 項強을 비롯하여 관절의 筋攣, 不能屈伸, 腫痛, 痺, 僂, 不遂 등의 다양한 節 관련 병증에서 足少陽膽經 및 膽俞穴를 치료혈로 응용했음을 알 수 있다. 『針灸資生經』에서 제시한 치료혈과 비교하면 足少陽膽經 및 膽俞穴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轉筋汗不出, 項強, 諸節痛의 3개 병증에서는 『針灸資生經』에 비해 膽 관련 경혈의 개수가 많아졌으며, 轉筋霍亂, 四肢轉筋厥逆, 腎厥頭痛, 手五指不能屈伸, 肘腕酸痛重, 鶴膝風, 歷節風의 8개 병증에서는 絕骨, 竅陰, 膽俞 등과 같은 膽 관련 경혈을 치료혈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특히, 歷節風의 경우에는 『針灸資生經』에서는 飛揚, 湧泉, 頷厭, 後頂의 4개 경혈을 제시하였는데, 『鍼灸經驗方』에서는 처방을 모두 바꾸어 風池, 絕骨, 膽俞와 같이 膽 관련 경혈로만 새로이 치료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許任은 膽과 節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관절 질환의 침구 치료에 있어서 膽 관련 경혈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성종 3년 3월 14일 기사.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URL: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3014\\_008#](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3014_008#)

26) 日本古醫學資料編輯部編. 鍼灸醫學典籍大系(9:針灸資生經). 東京. 1979.

27) 李漢求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3.

Table 5. Diseases that concerned with articulations and it's meridian points for treatment in *Chingujasaenggyeong* and *Chingugyeongheombang*

병증명	『鍼灸經驗方』	『針灸資生經』
轉筋霍亂	委中 關衝 至陰 <b>絕骨</b> 太衝	金門 僕參 承山 承筋
轉筋汗不出	<b>厥陰</b> 太淵 孔最 <b>陽陵泉</b> <b>膽俞</b> 兩臂轉筋穴	至陰 <b>厥陰</b>
四肢轉筋	湧泉 委中 <b>絕骨</b> 大杼 太衝 合谷 下三里	僕參 <b>厥陰</b> 至陰 解谿 <b>丘墟</b>
四肢轉筋厥逆	內庭 列缺 <b>厥陰</b> 至陰 承山 合谷 太衝 內踝尖	承筋 乳根
項強	風門 <b>肩井</b> <b>風池</b> 崑崙 天柱 風府 <b>絕骨</b>	少澤 前谷 後谿 陽谷 完骨 昆侖 小海 攢竹 消灤 <b>本神</b> 通天 強間 風府 暗門 天柱 <b>風池</b> 齶交 天沖 陶道, 外丘 通谷 玉枕
腎厥頭痛	關元 腎俞 <b>絕骨</b> 內關 <b>膽俞</b>	關元
手五指不能屈伸	曲池 下三里 外關 支溝 合谷 中腕 <b>絕骨</b> 中渚 手大指內廉第一節橫紋頭	外關 腕骨 中渚
肘腕酸痛重	內關 外關 <b>絕骨</b> 神門 合谷 中腕 天應穴	偏曆 外關 後谿 通里
鶴膝風	中腕 委中 <b>風池</b>	없음
諸節痛	陰陵泉 <b>膽俞</b> <b>風池</b> <b>絕骨</b>	<b>陽輔</b>
歷節風	<b>風池</b> <b>絕骨</b> <b>膽俞</b>	飛揚 湧泉 頷厭 後頂
周痺	膈俞 <b>臨泣</b>	膈俞 <b>足臨泣</b> 曲垣
腦痺	<b>風市</b> 崑崙	<b>陽輔</b> 陽交 <b>陽陵泉</b>
腰背僂僂	肺俞 期門 <b>風池</b>	<b>陽陵泉</b> , <b>風池</b>
言語蹇澁 半身不遂	百會 耳前髮際 <b>肩井</b> <b>風市</b> 下三里 <b>絕骨</b> 曲池 列缺 合谷 委中 太衝 照海 肝俞 支溝 間使	百會 耳前髮際 <b>肩井</b> <b>風市</b> 三里 <b>絕骨</b> 曲池

### III. 고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許任은 『鍼灸經驗方』에서 序文과 침구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장을 통해 膽과 筋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임상 실제에 반영하여 膽과 관계된 足少陽膽經의 穴 및 膽俞를 諸節痛, 歷節風, 轉筋 등의 다양한 관절 질환에 폭넓게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針灸資生經』의 침구 치료와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를 보여 膽이 筋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許任의 독특한 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

許任이 “諸節, 皆屬膽”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

기하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序文」의 12經脈 流走에 대한 설명에서 許任의 三陰三陽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許任은 “其始從中焦, 注手太陰陽明, 陽明注足陽明太陰, 太陰注手少陰太陽, 太陽走足太陽少陰, 少陰注手心主<sup>28)</sup>少陽, 少陽注足少陽厥陰, 厥陰復還注手太陰”<sup>29)</sup>과 같이 12經脈을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의 表裏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28) 心主는 厥陰을 의미한다.(송지청 외 4인, 心主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1). p.46.)

29)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461.

『素問·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 開闔樞와 그 구조가 일치한다.

『素問·陰陽離合論』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sup>30)</sup>를 살펴보면, 太陰-陽明, 少陰-太陽, 厥陰-少陽의 表裏 관계는 곧 인체에서의 三陰三陽의 공간적 위치와 開闔樞로서의 기능을 설명한다. 몸의 前面에서는 陽明과 太陰이 表裏가 되어 太陰은 開, 陽明은 闔의 역할을 수행하며, 後面에서는 太陽과 少陰이 表裏가 되어 太陽은 開, 少陰은 闔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側面에 위치한 少陽과 厥陰은 각각 陽明(闔)-太陽(開), 太陰(開)-少陰(闔)의 사이에서 樞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序文」의 三陰三陽을 表裏 관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을 미루어보면 許任은 經脈의 表裏 관계뿐 아니라 三陰三陽의 開闔樞 기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少陽은 곧 太陽과 陽明의 開闔을 조절하는 樞와 三陽과 三陰의 기능을 조절하는 樞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許任은 少陽을 樞로 인식함으로써 少陽-樞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로, 「傷寒及瘟疫」에서 三陽經病과 三陰經病에 대해 설명하면서 “少陽經病 … 尺脈俱弦, 屬膽木”<sup>31)</sup>이라 서술하여 少陽과 膽의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少陽이란 少陽經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둘의 상관성은 이미 『靈樞·經脈』의 “膽足少陽之脈”<sup>32)</sup>에서부터 제시된 개념이다. 즉, 少陽은 開闔樞의 樞이면서 동시에 足少陽經을 통해 膽의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셋째로, 節은 樞의 개념과 관계가 있다. 관절은 인체 운동에 있어 문의 지도리(樞)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筋骨이 자유롭게 움직이되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靈樞·根結』에서는 “樞

折即骨繇而不安於地, 故骨繇者, 取之少陽”<sup>33)</sup>이라 하여 樞가 기능을 잃으면 뼈가 흔들려 땅에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少陽經에 자침한다고 하였다. 즉, 節은 인체 운동의 樞로써 開闔樞 가운데 樞인 少陽과 연관성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少陽-樞-節-膽의 개념이 서로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許任이 膽과 節의 연관성을 제시한 것은 膽은 곧 少陽이며, 少陽은 樞의 기능을 수행하고, 節은 인체 운동에서 공간적 개념으로써 樞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膽과 節이 같은 樞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膽과 관련된 經穴을 통해 節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을 확립하였으리라 짐작한다. 그리고 실제 여러 관절 질환의 침구 처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諸節, 皆屬膽”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및 임상 실제에의 적용을 바탕으로 한 허임의 독창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IV. 결 론

1. 許任은 『鍼灸經驗方』에서 “諸節, 皆屬膽”이라는 문장을 통해 膽과 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침구 처방에 응용하였다.

2. 許任은 腰背僵痺, 諸節痛 등의 관절 질환 치료에 足少陽膽經의 穴을 활용하였고, 기존의 침구 처방과 달리 膽俞를 諸節痛, 歷節風 등 관절 질환의 치료에 활용하였다.

3. 許任이 “諸節, 皆屬膽”을 주장한 근거는, 膽은 足少陽으로써 開闔樞 중 樞에 해당하고 節은 인체 운동의 樞에 해당하여, 같은 樞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0) 정창현.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 - 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003. 16(2). pp.276-277.

31)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 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589.

32)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 黃帝內經靈樞).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344.

33)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 黃帝內經靈樞).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331.

## References

1. Publishing committee for Grand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ed.. New grand dictionary of Korean medicine. Seoul. Publishing Company Jeongdam. 2010.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編. 新韓醫學大辭典.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2. Kim SG ed.. The Outline of Korean Medicine(38;Chimgugyeongheombang).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金信根 編. 韓國醫學大系(38;鍼灸經驗方). 서울. 驪江出版社. 1995.
3.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1;Huangdineijingsuwen).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靈樞). 서울. 驪江出版社. 1995.
4.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1;Huangdineijinglingshu).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黃帝內經素問). 서울. 驪江出版社. 1995.
5. Li C. The original Text of Bianzhuyixuerumen. Seoul. Publishing Company Deaseong. 1984.  
李梴 編著.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4.
6. WHO Western Pacific Region Office original work.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Society for Meridian & Acupuncture trans.. WHO/WPR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Official Korean Ver.). Seoul. Elsevier Korea. 2009.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침구학회, 경락경혈학회 譯. WHO/WPRO 표준경혈위치(한글 공식판). 서울. Elsevier Korea. 2009.
7. Editing committee for Japanese medical classics ed.. The Outline of Acupuncture medical Classics(8,9;Zhenjiuzishengjing). Tokyo. 1979.  
日本古醫學資料 編輯部 編. 鍼灸醫學典籍大系(8,9;針灸資生經). 東京. 1979.
8. Yim SB. A Study on Life and Activities of Heo Im during Middle Joseon Dynasty. The Yeoksa and Silhak. 2014. 54.  
임선빈. 조선중기 鍼醫 許任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실학. 2014. 54.
9. Oh JH. Criticism & Acceptance of 'Chimgugyeongheombang' <Acupuncture & Moxibustion Skills Gui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th a focus on bibliography survey and transcription. J. of Korean Classics. 2011. 38.  
오준호. 조선후기 『鍼灸經驗方』의 비판과 수용 : 판본조사와 手抄 내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2011. 38.
10. Park MH. Medical historical investigation regarding Hur Im's 『Chim Gu Kyung Heom Bang』. J. Korean Medical History. 2000. 13(1).  
박문현.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학적 고찰 : 저자, 판본, 간행배경, 편제에 대하여. 한국의사학회지. 2000. 13(1).
11. Park MH. A Study of Huh-Im(許任)'s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J. Korean Medical History. 2002. 15(1).  
박문현.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002. 15(1).
12. Oh JH. The 17th century Medical Service and Acupuncture & Moxibustion Technique in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viewed through 'Chimgugyeongheombang'. J. of Korean Classics. 2011. 24(1).  
오준호. 『침구경험방』을 통해 본 17세기 조



- 선 의료와 침구기법. 한국사학회지. 2011. 24(1).
13. Oh JH, Ahn SW. The Study on Needling Insertion Method at CV12 in Chim-gu-kyung-heom-bang(鍼灸經驗方). Korean J. Acupuncture. 2010. 27(2).  
오준호, 안상우. 『鍼灸經驗方』鍼中腕穴手法 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10. 27(2).
14. Lee YH, et al.. An analytic study of acupoint Locations described in 「WaHyul」 of 『ChimGuKyungHum Bang』 and their modern application. Korean J. Acupuncture. 2008. 25(4).  
이연희 외 4인. 『鍼灸經驗方』「訛穴」의 取穴法 분석에 따른 현대적 적용 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08. 25(4).
15. Park SJ, Ahn CB. The Study of Chim-Gu-Kyeong-Hum-Bang by Huh-Im. J. Dong-Eui Oriental Medicine. 2007. 1.  
박세정, 안창범. 許任의 鍼灸經驗方에 대한 考察. 동의한의연구. 2007. 1.
16. Han CH, et al..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Acupuncture for Eye diseases.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3).  
한창현 외 5인. 국내침구서적의 眼疾患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의 비교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3).
17. Han CH, et al..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Acupuncture for Headache and Vertigo. Korea J. Oriental Medicine. 2010. 16(1).  
한창현 외 5인. 두통과 현훈 치료관련 침구 문헌 비교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2010. 16(1).
18. Han CH, et al..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Stroke. Korean J. Acupuncture. 2009. 26(2).  
한창현 외 5인. 국내침구서적의 중풍치료에 관한 문헌 연구 : 『治腫指南』,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校勘 舍岩道人鍼法』의 비교연구. Korean J. Acupuncture. 2009. 26(2).
19. Jeong CH. New Advances on Opening, Closing, and Pivot of Three Yin and Three Yang - Focused on 'Reverting Yin is Pivot, Lesser Yin is Closing'. J. Korean Medical Classics. 2003. 16(2).  
정창현.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 - 厥陰爲樞, 少陰爲合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16(2).
20. Song JC, et al.. A Study on the Meaning of Simju. J.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1).  
송지청 외 4인. 心主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1).
2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ited at 27 October 2016] Available from : URL :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3014\\_008#](http://sillok.history.go.kr/id/kia_10303014_00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